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1. 9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영국 환경단체, 중국의 IUU 어획물 일본에 유입 의혹 제기
2. 일본 홋카이도 근해 가을 연어, 적조현상으로 대량 폐사
3. 베트남 총리 IUU 근절 선언
4. 가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법 개정
5. ISSF, "5개 수산기구 기준 2021년 조업 등록 선망선 총 1,855척"
6. WTO, 초과 어획 지원 보조금 금지에 대한 회담 재개
7. 전 세계 소형 참치 선망선 척수 증가
8. 스페인 가족 기업, 참다랑어 MSC 인증 신청

- 영국 환경단체, ERF, 중국 기업의 IUU 어획물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보고서 제출



- 영국의 환경단체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RF) 은 8월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선을 통해 일본으로 수산물인 수산물 수입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
- 동기업의 참치 연승 어선 7척의 인도네시아인 선원 총 1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어종 어획, 피닝 등의 위법 조업과 도상국 선원을 24시간 동안 장시간 불법 노동을 시키거나, 폭력행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협박, 비위생적인 식사, 임금 미지불 등의 인권 침해가 상습적으로 발생

- 동 기업의 어선과 운반선이 접촉하여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 기항한 모습도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로 관측
- 일본 측의 대책에 따라 향후 자금조달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도 지적
- 인터뷰 이전 단계에서 동 중국기업의 어선이 작년 선내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원의 의료 대응을 거부, 4명이 사망한 것도 밝혀짐
- EIJ는 불법 조업에 대해 해양환경 악화나 합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의 경영 악화, 경비 삭감을 목표로 하는 어선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수산유통 적정화법”에 의한 수입규제를 가능한 엄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

구분	EIJ 보고서 제안 사항
1	기존에 IUU 어획물 수입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는 EU, 미국과 동일하게 어획증명서 채용
2	수산업계와 정부의 정보 공유와 추가적인 대책
3	부정한 어획 증명서를 검출하기 위한 공정 전자화
4	최대한 많은 어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실시한 뒤에 유통 적정화법 이외의 법률과의 일관되고 강력한 관리
5	수입관리 조건에 인권문제 추가
6	어업 범죄 처벌 공표 등 수산업 투명화 지원
7	국내 유통관계자애의 신속한 대응

- EIJ는 해외에서는 자원, 인권을 배려한 ESG (환경·사회·기업통치)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일본에도 정착할 것으로 전망

- 현재 국내 상사가 산하 기업 이외로부터 조달하는 수산물 합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음
- 투명성 확보를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ESG 투자 보급과 자금조달, 수출이 어려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문제 제기
- 동법의 수입규제에서는 수입업자는 대상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된 것임을 제시하는 서류를 입수하여, 일본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업자, 세관의 업무 비용 등의 관점에서, 대상 어종 범위를 추려달라는 요청이 수산업계에서 있었음
- 일본 수산청은 우선적으로 수입규제 할 어종의 IUU가 리스크와 일본 주변에서 자원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어종을 고려
 -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를 대상 어종으로 할 방침
- 현재로서는 인권은 중요한 요건으로 목적의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음
- 국제적인 어업관리기구에서 인권문제와 IUU와의 관련성,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단,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인권의 중요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음

※출처: 미나토 신문¹⁾

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6061>

- 일본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근해, 적조 현상으로 가을 연어가 대량으로 폐사
- 일본 홋카이도 오오츠 어협에서는 9월 28일 기준, 약 4,300마리의 연어가 폐사하면서, 정치망 어업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
 - 동 어협에 따르면, 죽은 연어는 22일부터 28일까지 610마리 정도 발견되었고, 피해는 동 어협이 양륙한 연어의 과반수에 해당,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
 - 적조 현상으로 연어가 이렇게 많이 사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도도 없는 상황
 - 홋카이도 수산진흥과에 따르면 오오츠 어항 연안에서 20일에 적조의 원인이 되는 유해 플랑크톤이 검출됨, 22일에는 홋카이도 수산 실험장에서도 적조 발생이 확인됨
 - 홋카이도에서는 현재 연어 대량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
 - 과거 바다에 폭풍우로 인해 연어가 대량으로 죽는 일은 있었지만 갑작스런 적조 현상으로 대량 사망하는 일은 전례가 없음
 - 홋카이도, 관련 지자체, 어협 등은 28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출석자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주1회, 해수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됨

※ 출처: 요미우리 신문²⁾

2) <https://news.yahoo.co.jp/articles/7b5d95419b42c3d67fcf93b0be4cb91608aabf04>

□ EU 옐로우카드를 해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

- 베트남 총리가 유럽 이사회(EC)의 옐로우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2021년 안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킬 것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
- 총리는 9월 중 베트남 연안지역 관리 및 수산 업계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본 요청을 전달
- 베트남은 2017년 EC로부터 IUU 어업 해결을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옐로우카드를 받음
- 옐로우카드 부여 이후 EU는 매년 베트남 수산업법을 검토하며, (1) 옐로우카드 유지, (2) 레드카드 부여(베트남 수산물의 EU 시장 전면 수입 금지), (3) 옐로우카드 해지,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지속 적용 중
- 총리는 EC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IUU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등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베트남 수산물 입출입 항구를 감시하기 위해한 제도 필요를 강조
- 7월 베트남 부총리는 많은 노력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획물을 베트남 항구에서 모두 막지 못하고 있음을 내각회의에서 지적하며, 2022년까지 모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기를 지역정부에 요청
- 2017년과 2019년 EU의 옐로우카드 지정 이후 대EU 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총 12%가 감소하며 1백55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
- 베트남 양식 수산물 역시 동 기간 13%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8백만 유로가 넘는 대 EU 수출액 감소

- 레드카드가 부여될 시, EU 시장에 수출되는 베트남 다랑어, 오징어, 문어 등의 수출 금지로 매년 약 3백만 유로의 베트남 수산물 수출 감소가 예상됨

※ 기사 출처: Seafoodsource³⁾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vietnam-s-prime-minister-orders-an-end-to-illegal-fishing-this-year> ('21년 9월 27일 검색)

□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규정 신설을 통한 수산 생태계 개선 시도

- 가나는 자국 수산 생태계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현 수산법을 대체하는 신규 법 제정 준비를 시작함
- 불법 어업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온 가나 개발부 장관(Development Minister) Mavis Hawa Koomson은 개발부에 2019년 만료된 국가수산관리계획을 대체하는 신규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
- 가나 수산부에 따르면 본 국가계획은 수산업계와 어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산자원 재구축을 목표로하는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내외 제도 및 표준에 부합하는 고용과 가나 수산물 품질 개선에 집중
- 2002년 발의되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현 가나 수산법은 수산관리와 수산 보존관리, 양식, 수산물 교역에 대한 규정을 보유
- 구체적 조항으로는 상업 어선의 등록 및 마킹, 어구 이용 및 라이선스, 어획물 덤핑 및 전재 등이 있으며, 어업 감시 메커니즘과 양식물 종자 등 양식업 조항도 포함함
- 본 수산법을 기반으로 가나는 자국 수산위원회와 수산개발자금(Fisheries Development Fund)을 수립하였고, 가나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
- 가나의 수산법과 국가수산관리계획을 통해 국제 수산관리 및 우수관행을 국내법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더해, 가나 수역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감시와 더불어 수산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도 추가될 예정

출처: Seafoodsource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ghana-reviewing-its-fisheries-act-to-protect-its-fisheries> ('21년 9월 27일 검색)

- ISSF의 2021년 대형 참치 선망 선단 보고서에 따르면 CCSBT, ICCAT, IOTC, 및 WCPFC 5개의 수산관리기구(RFMOs)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2021년 선망선은 1,855척으로 작년 1,721척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열대 다랑어 어종을 목표로 어획하며 어업 용적이 865,000m³ 이상으로 정의된 대형 선망선(Large-scale purse seine, LSPS)으로 분류된 선망선은 대략 678척으로 작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조업선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참치 어업 능력을 관리하는데 중요함
 - 선망선은 전세계 참치 어획에 69%를 차지함
 - 소형 선망선 또는 EEZ에서 조업하는 선망선은 수산관리기구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선망선의 척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
 - 기록된 대형 선망선 중 16%는 1개 이상의 RFMO에 중복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5개 기구 중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등록된 LSPS가 341척으로 가장 많음
 - 이는 전세계 선망선의 50%가 넘는 수치임
 - ISSF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선박주는 선박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IMO 번호를 신청할 것

- IMO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선박주는 선박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IHS-Maritime에 전달하여 선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것
- 참치 RFMO(tRFMO) 회원국들은 RFMO에 제출하는 선박 기록에 대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RFMO는 품질 관리 체계를 포함한 선박 등록 요구 사항을 채택해야함
- 모든 tRFMO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 선박 목록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조업 중인 선박에 대한 목록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함 권고

※ 출처: ISSF⁵⁾

5)<https://iss-foundation.org/issf-study-reports-increase-in-purse-seine-vessels-overall-but-fewer-large-scale-purse-seine-vessels-fishing-for-tropical-tuna-species-globally/> ('21년 9월 29일 검색)

- WTO는 '유해 수산 보조금(harmful fishery subsidies)'을 종료시키기 위해 9월 1일부터 회담을 지속하고 있으며 초과 용량(overcapacity) 및 초과 어획(overfishing)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중임
 - 7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음
 - 10월 7일까지 이어지는 WTO 회담에서는 예외 사항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음
 - 5.1.1 조항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된 수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으로 10월 7일까지 완성할 예정임
 - 5.5항의 경우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예외 조항과 이행 기간을 제안하고 있음
 - 다수 회원국은 예외 조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길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초과 어획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규모 상업적 어업 보조금 금지 관련 제안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지역 수산관리 기구의 규정 집행 역할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출처: SeafoodSource⁶⁾

6)<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renewed-wto-talks-on-subsidies-zero-in-on-overcapacity-overfishing>('21년 9월 29일 검색)

- 지난 1년간 전 세계 참치 선망선 척수가 100척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이 선박들의 대부분은 소형 또는 미니 선망선들로, 동 기간 대형 선망선들이 전체 선망선 척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 이는 지난 주에 발간된 ISSF의 '대형 선망 선단 보고서'에 따른 것임. 보고서는 2021년 7월까지 업데이트된 것으로서, 모든 참치 RFMO로부터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데이터를 계산하였음.
- 2021년 7월까지 세계 선망선 척수는 1년 만에 1721척에서 1855척으로 증가하였다고 ISSF는 보고하고 있음. 이는 8% 증가한 수치로, ICCAT와 IOTC에 등록된 선박들의 증가 때문임. 새롭게 추가된 선박들은 기존에 운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ICCAT에서 늘어난 선박들은 참다랑어 선박들이고 IOTC에서 늘어난 선박들은 인도네시아 선박들임.
- ISSF는 소형 선박들이 전 세계 선망선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모든 RFMO에서 선망선의 크기는 7.1m - 116m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이 약 22.5m의 크기임.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RFMO에서 20m 미만 선박들은 등록될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아, 20m 미만 선박들에 대한 허가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또한 언급되고 있음.
- 전 세계 모든 선망선들의 어창 용량(FHV, fish-holding volume)의 합산은 113만 m³임. 가장 많은 선망선을 두고 있는 국가는 모로코로 452척임. 총 어획능력으로는, FHV가 87,117m³인 에콰도르가 1위임.
- 선망선 전체 척수는 증가하였지만, 운항하고 있는 대형 선망선 척수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ISSF의 목록에는 대형 선망선이 826척으로 집계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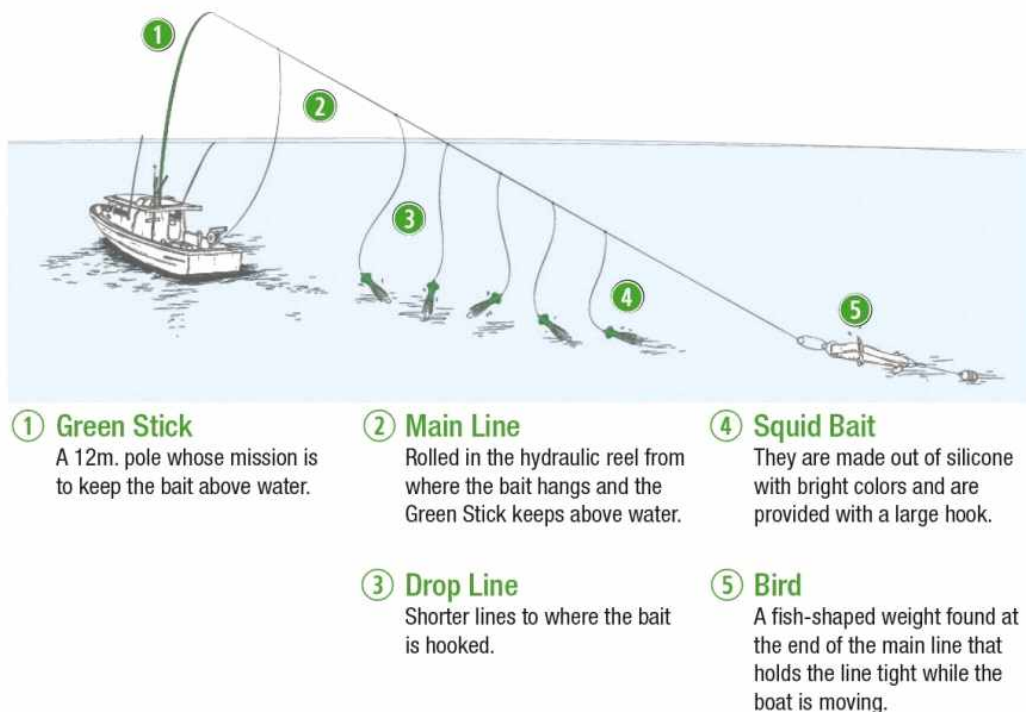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2.6% 감소한 것임. ISSF에 의해 대형 선박으로 정의되는 선박은 FHV가 335m³ 이상인 선박으로, 전체 참치 선망선 중 45%가 대형 선망선임.

- 대형 선망선 826척은 세계 참치 선망 어획능력의 약 84%(941,400m³)를 차지하고 있음. 이 선박들은 열대다랑어, 참다랑어 등 모든 참치 어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열대다랑어를 목표로 하는 선박이 678척이고, 이 선박들의 FHV는 865,390m³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열대다랑어 선망선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에콰도르(85척)이고, 그 다음은 멕시코(49척), 한국(48척), 필리핀(44척), 인도네시아(38척) 등임.
- 열대다랑어 선망선 678척 중 16%가 2개 이상의 RFMO에 등록되어 있다고 함. WCPFC가 협약수역 내에서 341척의 선망선이 허가되어 있음.

※ 출처: atuna.com 7)

7) <https://atuna.com/news/small-seiners-pushing-sharp-growth-of-world-s-tuna-fleet?highlight=WyJpY2NhdCIsImljY2F0J3MiXQ==>
(2021년 9월 21일 기사)

- 스페인 가족 기업이 참다랑어 어업 MSC 인증 신청을 하였음. 인증평가기관 (CAB)인 DNV는 8월 31일에 스페인 회사 JC Mackintosh가 MSC 인증 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이 어업은 지브롤터 해협에서 그린스틱, 손낙시 및 채낙기로 동부대서양 참다랑어를 조업하고 있음.
- 평가단위(UoA, Unit of Assessment)1은 FAO 27해구(북동대서양)와 37해구(지중해, 흑해)에서의 그린스틱 어구에 대한 것이고, 평가단위2는 손낙시와 채낙기에 대한 것임
- 그린스틱은 일본에서 기원한 어법으로, 긴 섬유 또는 탄소 유리 기둥이 줄과 미끼를 바다 표면 15m 위에서 연결하여, 선미에서 180-200m 거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법으로, 가장 큰 어류들이 주로 어획되는 매우 선별적인 어법임.



출처 : <https://www.jcmackintosh.es/en/atun-rojo-del-estrecho/111-green-stick-what-is-it>

- 지난 해, 두 개의 참다랑어 어업에 부여된 MSC 인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 일본 회사 우수후쿠 혼텐이 인증을 받았을 때 WWF와 PEW는 동부대서양 참다랑어 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었음. 당시 WWF 지중해 해양 이니셔티브 관계자는 “참다랑어 어업은 현재 MSC를 포함한 그 어떠한 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음.
-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이 자원의 상태를 2011년 ‘멸종 위기’에서 2015년에 ‘위기 근접’으로 상향했음. 이 참치 자원은 10년 전에 붕괴 직전까지 갔었음. ICCAT에서 2020년에 이 자원에 대해 36000톤의 TAC를 설정하였음.
- JC Mackintosh 어업은 연간 참다랑어 어획량이 약 100톤으로, 회사는 스페인 Tarifa에 위치하고 있음. CEO인 Juan Carlos Mackintosh는 회사가 건강한 삶에 대한 열정과 자연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품질 높은 참다랑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였음.
- CAB 문서에 따르면, 동부참다랑어 자원은 회복되고 있고, 사전예방적인 수확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고 함. 하지만, 자원이 아직은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잘 정의된 HCR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또한, 레저어업에 의한 어획량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고 이 불확실성이 어획량 데이터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도 지적되었음.
- CAB는 이 어업의 강점은 비목표종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고, 약점은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RBF)의 부재임. 어업에서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행되고 있지만, 레저어업에 의한 불법어업 활동이 보고되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음.

※ 출처: atuna.com 8)

8) <https://atuna.com/news/family-business-goes-for-controversial-atlantic-bluefin-msc-assessment?highlight=WyJpY2NhdCIsImljY2F0J3MiXQ==>
(2021년 9월 3일 기사)